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애널리스트 Q&A 정리

질문 1. 글로벌 업체들의 실적발표를 보면 2분기부터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씨젠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2분기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방향성을 공유해 주세요.

답변 1. 코로나 진단시장 수요의 방향성은 월별 수출 데이터와 글로벌 업체들의 가이드언스 등을 통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진단시장 수요는 3월부터 유럽/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스크리닝 수요가 급감중인 상황이며, 이 부분은 타 글로벌 업체들과도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변이 출현, 방역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정량적인 가이드언스의 제공은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코로나 시장 수요 감소에 따른 단기적 매출 감소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물으시면, 저희의 강점인 호흡기 Syndromic 검사를 바탕으로 생활검사로의 전환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3 Ct와 AIOS 출시 등을 통해 얼마만큼의 단기적 매출 감소를 관리하고 회복할 것인지가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2. 최근 여러 투자자를 만나면서 의미있게 받았던 피드백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2. 여전히 우려가 제일 많으신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Cash에 대한 활용도, 궁극적으로는 M&A 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으시구요. 저희가 M&A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밖에 말씀 못드리는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굉장히 다각도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결과물들이 확정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기실적을 낼 때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률 수준으로 방어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인력채용 관련 질문이 많은데 올해 말 인력 규모는 작년 말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하여 2분기는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하반기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지에 대한 궁금증은 있으나, 저희도 답변하기 어려운, 일종의 전환

기이기 때문에 대신 2분기 끝날 때 좀 어떠한 성과를 보여드리느냐에 따라 하반기 색깔이 좀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3.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짙어 마진에 대한 부분이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영향과, 고정비 차원에서 보면 인건비와 연구개발비가 화두인데 정액 기준인지 아니면 매출 대비 비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3. 인플레이션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부분이나 저희는 아직까지 인플레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1분기 원가율이 올라간 이유는 재고 관련 평가손이나 폐기손이 반영된 결과이나, 여전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고정금액이 아니며,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 규모 등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